희망과 감동 KBS가 함께합니다

KBS 사보

2018년 6월 29일 금요일
vol.663

‘노동시간 단축’ 이렇게 바뀝니다

KBS는

지난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올해 7월 1일부터 주 68시간 기준이 적용되고 내년 7월부터는 주 52시간 기준이 적용된다. KBS는 이번 ‘노동시간 단축’을 업무 효율화와 일·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문화 혁신의 계기로 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KBS 직원들의 초과근로 현황

4월에 한주라도 주당 68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인원을 파악해보니 전체의 5.4%인 249명이었다. 52시간 기준을 적용했을 때는 초과 근로자가 더 늘어나서 전체의 26.7%인 1,226명에 달했다. 더 구체적인 현황파악을 위해 근로주(근로자수×4주)를 근로시간 초과주로 나눠 본부별 초과율을 계산해 봤더니 68시간 기준으로 드라마사업부의 초과율이 15%를 기록해 타 본부에 비해 크게 높았고 제작본부 6%, 보도본부 4%로 그 뒤를 이었다. 52시간 기준에서는 보도본부의 초과율이 크게 높아졌다. 보도본부와 드라마사업부의 초과율이 각각 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이 제작본부 20%, 제작기술본부 19%, 방송본부 14% 순이었다.

앞으로 주당 68시간을 초과하면 ‘알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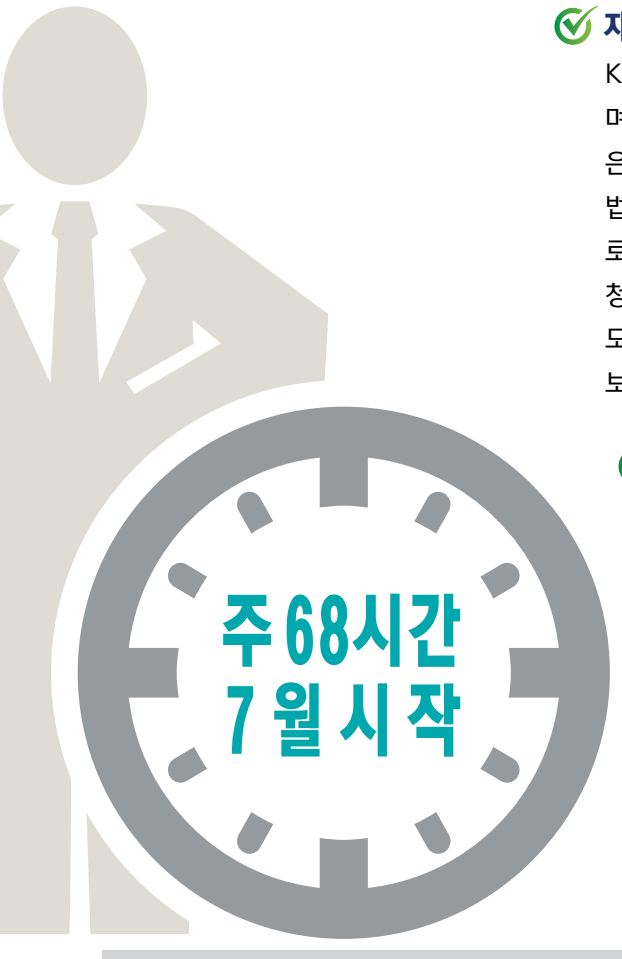
이번 주 부터는 코비스 시간외실비 신청 항목에서 ‘주단위’ 연장근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한주의 연장근로 시간이 12시간에 도달했을 경우 ‘연장 잔여’ 항목이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일종의 알람 기능이 작동한다. (소정 40시간·휴일 16시간·연장 12시간 기준)

시간외근무 현황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연장 합계	연장 잔여
2	3	4	5	6 10:00	7	8 02:00	12:00	00:00
9 07:00	10	11 08:00	12 04:00	13	14	15	19:00	-07:00
16	17	18	19	20	21	22	00:00	12:00

연장근로, ‘통제’보다 ‘자율관리’가 먼저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되는 7월 1일부터 연장근로 시간 기준(68시간)에 따라 시간외실비 신청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근로자 개개인이 코비스의 주단위 현황을 참고해 시간을 배분하는 등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관리해야 한다. KBS는 근로자 개인의 자율적인 관리가 이뤄진다는 전제 하에 부서별 주단위 모니터링을 실시해 회사차원의 대응책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연장근로의 결재권자를 부장급으로 높이는 등 결재방식과 절차를 조정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또한 코비스 전면 개편 계획과 연계해 근로시간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할 예정이다. 새로운 시스템에 맞춰 시간외실비 지급 지침 등 관련 사규 역시 개정될 예정이다.



재난방송은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통해 대비

KBS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재난방송주관방송사다. 지난 2017년에 KBS에 편성된 특보 등 재난방송은 모두 1,199시간이며, 2016년은 2,097시간이다. 재난의 특성상 돌발적으로 방송에 돌입하는 만큼 방송직군은 물론 다양한 관련 직군의 직원까지 많은 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된다.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와 함께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재난방송의 경우 근로기준법 53조 4항의 인가 연장근로 조항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재난특보 등 재난방송을 긴급 편성해 방송할 경우 사후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연장근로 예외를 적용받는 방식이다. KBS는 고용노동부와 KBS를 관할하고 있는 서울남부지청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 중이다. 다만, 인가 연장근로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 예상할 수 없는 재난상황의 보도에 국한되기 때문에 예정된 국가적 행사나 올림픽 등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 등에는 적용 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적 관심 사안의 보도나 방송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다.

인력 충원과 유연근로제 도입을 검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충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KBS는 각 본부별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하반기에 실시될 신입 공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는 것 만큼이나 기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늘 변동 가능성이 큰 방송업의 특성상 관련 업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연근로제 도입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유연근로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2주·3개월 이내),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등이다. 모든 직종에 동일한 유연근무제가 도입될 필요는 없지만 각 직종의 업무 형태에 어떤 유연근로제 도입이 적합한지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유연근로제는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이 노사간의 서면합의를 필요로 한다. KBS는 적극적인 노동조합과의 협의와 산별 교섭을 통해 직원들이 동의 할 수 있는 형태의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해 노력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편성시간 축소와 조정 등 제작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을 위해 연구반을 운영하고 불필요한 업무와 회의 축소, 조직 문화 개선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자료제공 : 혁신추진부

INSIDE | **4면** 세월호 가족 꽃잎 편지 전시회 **5면** 부산총국 보도국 페이스북 방송 ‘다락방’ **6면** 오디오 드라마 <행복한 이기주의자>

시청자와 하나 된 6월의 KBS

6월엔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대형 이슈 '러시아 월드컵 개막', '6.13 지방선거', '북미정상회담'이 한주에 몰려 있던 슈퍼위크가 지나갔다. KBS 구성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뛰었고 새로운 KBS에 대한 시청자들의 기대를 충족시켰다.

월드컵 개막부터 대한민국 경기 생중계까지…시청자의 선택은 KBS

러시아 월드컵 중계방송은 6월 14일 개막식 방송에 이어 6월 27일 '대한민국 vs 독일'과의 생중계까지 시청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중계기술국은 이번 러시아 월드컵 중계방송을 위해 모스크바 현지에서 5월 22일부터 중계인력 5명이 현지 방송센터 설치공사를 시작해 장비랙 설치 및 장비 셋업을 했다. 주관방송사로부터 국제신호 연결, 본사와 회선개통 등의 업무를 마치고 6월 14일 러시아와 사우디의 개막전 경기부터 6월 27일 대한민국과 독일의 중계방송을 제작해 국내로 송출했다. 중계방송은 7월 15일 폐막전 경기 방송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KBS의 러시아 월드컵 중계진은 이영표 해설위원, 이근호 해설위원, 그리고 이광용 캐스터가 맡았다. 2TV 중계는 가장 중요한 한국전에서 특히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중계진의 예리한 분석력과 디테일하고 전문적인 지식 등으로 꼽혔다. 6월 18일 한국과 스웨덴 중계방송에서 KBS 2TV는 전국 시청자수 375만 명을 기록했으며, 전국 가구 시청률에서도 17.1%(닐슨코리아)으로 중계방송 1위를 차지했다. 또한 6월 27일 한국과 독일 경기 생중계에서도 전국 가구 시청률 15.8%로 1위를 기록했다. 차별화된 중계로 시청자의 관심과 집중도가 높은 한국전에 빛을 발할 수 있었다. 여기엔 한국전에 집중한 스포츠국의 전략이 유효했다.

'개표방송의 최강자'…6.13 지방선거 개표방송

제 7회 지방선거 개표방송에서 KBS는 '개표방송의 최강자'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 이번 개표방송은 기본적인 정보 전달에 가장 중심을 두면서 기존의 선거 방송에 비해 구성적으로 세련됐다는 평을 받았다. 또한 전문가가 개표 동향을 설명하는 'K 포럼', 유권자 성향을 분석하는 '심층 출구조사', 야외무대를 활용한 증강현실 그래픽, '전국득표자랑' 포맷 등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를 선보였다. 6월 13일 오후 5시부터 새벽 1시 채널별 시청지표를 보면 평균 시청자수 순위에서 KBS 1TV는 141만으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로는 MBC 123만, SBS 106만, JTBC 78만 순이다. 가구 시청률 순위에서도 7.5%(닐슨코리아/전국기준)를 기록해 개표방송의 최강자라는 것을 보여줬다.

'정통 코드가 통했다'…북미 정상 회담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당일 아침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채널별 평균 시청자수는 닐슨코리아 전국 기준으로 KBS 1TV는 111만, JTBC 67만, SBS 52만, MBC 45만 순으로 KBS가 가장 높은 영향력을 보였다. 또한 가구 시청률로 봤을 때도 KBS 1TV는 6.3%로 압도적인 1위를 했다. 그 뒤를 JTBC 3.6%, SBS 2.7%, MBC 2.3% 순으로 기록했다. 특히 양국 정상이 만난 순간에 방송된 KBS 뉴스특보(07시 50분~10시 30분)는 전국 기준 8.0%의 시청률로 당일 전 방송사 모든 특보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해 역시 국가 중대사에서는 국민들의 눈과 귀가 KBS로 향함을 다시금 입증했다. 싱가포르의 6월은 뜨거웠던 날씨만큼 뜨거웠던 현장이었다. 최초로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 센토사 섬의 Capella 호텔에서 만난다고 발표가 난 순간부터 세계의 모든 언론은 싱가포르를 주목했고, 그 순간을 전달하기 위해 매진했다. KBS도 역사적인 순간을 시청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기자, 촬영기자, 영상제작, 방송기술 등의 KBS의 제작 인력들이 싱가포르 MYP 센터 빌딩에 오픈 스튜디오를 만들고 현장 중계를 했다. 영상제작3의 박진형 감독은 "역사의 현장을 시청자들에게 생생히 전달하겠다는 열정으로 6월 싱가포르의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모든 제작 인력들이 촉박했던 일정 속에서도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했기에 북미정상회담에서 우리는 '정통 코드가 통했다'라는 평을 받을 수 있었다.

“과거를 기록해 미래를 설계한다”

KBS 정상화 위한 ‘진실과미래위원회’ 공식 출범

과거 KBS에서 일어난 방송 공정성과 공적책임 침해 사례를 규명하기 위한 KBS ‘진실과미래위원회’가 6월 19일 서울 여의도 본사 연구동에서 현판식을 열고 KBS 정상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정상화 기구 설치는 양승동 사장이 지난 2월 사장 후보자 정책평가회에서 시민자문단에게 약속한 정책공약이기도 하다.

진실과미래위원회는 정필모 KBS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김의철 보도본부장, 김덕재 제작본부장, 박재홍 시청자본부장이 내부 위원을 맡았고, 외부 위원으로는 고상만 인권운동가, 김진 변호사, 정수영 성균관대 연구교수가 위촉됐다. 부위원장에는 고상만 위원이 호선됐다. 위원회의 시한은 10개월이며 필요 시 1회에 한해 6개월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 위원회 활동 내용은 백서로 남게 된다.

공정성 침해·부당인사 등 6개 분야 조사 안건 의결, 불공정 방송 국민신고센터 운영

이날 현판식에 앞서 진실과미래위원회는 1차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침해 및 부당인사, 부당노동행위, 부정청탁 등 공적책임 훼손에 해당하는 6개 분야에 대한 조사 안건을 의결했다. 과거 정권 시절, KBS 안팎에서 논란이 컸던 방송 독립성 침해 사례를 비롯해 몇몇 방송인들의 갑작스런 방송 하차 과정에서 불거진 ‘블랙리스트 논란’과 제작물의 불방이 대표적인 조사대상이다. 또한 정권 홍보 방송이라는 비판을 받은 불공정 보도들은 유형별로 사례를 묶어 보도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순차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외부위원들은 추가 안건을 의결하기도 했다. 사내뿐만 아니라 시청자, 더 나아가 국민들이 겪은 불공정 방송 사례 등에 관한 제보를 받기 위한 국민신고센터(가칭)를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다음 달 10일 제2차 위원회를 연다. 위원회가 의결한 안건의 조사는 실무 조직인 ‘진실과미래추진단’에서 맡는다. 추진단은 복진선 단장과 윤성도 부단장을 포함해 13명의 조사역으로 꾸려졌다.

진/실/과/미/래/위/원/회/가 궁금하다

왜 필요한가?

진실과미래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KBS의 공적책임과 방송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침해한 사례들을 조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불행한 과거를 정리하고 이른바 ‘적폐’의 역사를 청산해 조직을 혁신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무엇을 하나?

과거 정권에서 일어난 불공정 방송 사례와 부당인사 등 진실규명이 필요한 대상을 선정한다. 또 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부서장에게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어떻게 조사하나?

조사대상자와 참고인 등 관계자가 요청을 하면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조사대상자와 조사신청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조사 이후 절차는?

위원회는 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해 사장에게 보고한다. 이 때 재발 방지나 명예회복 등 피해 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징계 등 인사조치도 권고할 수 있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공사의 화합을 위해 사규 개정 및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조사를 방해하면?

허위진술, 자료은폐 등 조사를 방해하고 조사에 불응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비밀준수를 위반하면 위원회는 의결로써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기구와 다른 점은?

위원회는 감사기구가 아니라 조사기구이다. 또한 위원회가 공공 감사법 또는 방송법 위반 소지도 없다는 것이 법조계 다수의 검토 결과이다.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과거사위원회가 있었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KBS 위원회 역시 잘못된 역사를 기록하고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집행기관의 직무수행을 보조하는 임시기구이다.

네 번째 봄

너희를 담은 시간展 세월호 가족 꽃잎 편지

“잊지 않겠습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꽃마중 <그립고 그립고 그러운> 2017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했다.
여객선에 타고 있던 사람은 476명. 이 가운데 304명이 사망했으며, 261명이 수학여행을 떠났던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과 선생님들이었다.
어느덧 4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멈춰진 시간.
“잊지 않겠습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은 이들이 수 없이 되뇌었던 말이다.

다닥다닥 인사

늘 그래요.
첫 전시 때는 다른 공예랑 함께여서 그랬고
그 뒤로 열다섯 번째 이어지고 있는데 늘 이렇게
다닥다닥입니다.
공간이 좁아서만은 아니고, 아이들 이야기가 많아서 그래요.
아직도 담지 못한 아이들이 더 많아요.
누군가는 그러네요.
좀 뺄 건 빼시지요, 전에 했던 건 교대 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안돼요.
우리 보기 좋게 돔씨 자랑 하는 거 아니라서요.
하나도 빠트리거나 소홀할 수 없는 우리들 시간이라서요.
아이들 이야기라서요, 그리움이라서요.
그러니 좀 불편하더라도 이해해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하나하나 살펴주세요.
찾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기억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2018. 꽃마중 올림

너희를 담은 시간

작품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입니다.

KBS와 ‘416 가족협의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세월호 가족 꽃잎 편지 ‘너희를 담은 시간’ 展> 전시회가 지난 22일부터 서울 여의도 KBS본관 시청자광장에서 열리고 있다. 전시 작품은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 희생자 가족들이 손수 아이들을 그리며 직접 쓴 편지글을 담은 꽃누르미(압화) 90여 점. 가족들은 이 작품들을 ‘아이들’이라고 부른다.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했고 꿈은 무엇이었는지, 작품 하나하나에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에 이제는 각자의 가슴에 깊이 박힌, 빼낼 수 없는 가시가 돼 버린 아이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전시회, KBS 구성원들이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될 것”

양승동 사장은 개장식에 참석해 “이번 전시회를 통해 세월호 참사가 주는 교훈을 새기고, 아이들이 마음속에 자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KBS 구성원들이 어떻게 방송의 책무를 다하고, 국민들과 세월호 유가족 분들에게 위로와 힘을 드리는 방송을 할 수 있을지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아이들 안고 왔던 4년 전엔 문전박대 받았는데…”

세월호 희생자인 단원고 2학년 정차웅 군의 어머니이자 전시를 기획한 ‘꽃마중’ 팀 일원이기도 한 김연실 씨는 감회가 새롭다며 말문을 열었다. “전시회 개막 전날 액자를 설치하러 왔는데, 4년 전 아이들의 사진을 가슴에 안고 처음 KBS에 왔던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문전박대 받았었잖아요. 참 많이 아프고 슬펐었는데, 이렇게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이 넓은 공간에서 하게 될 거라는 건 그때는 생각도 못 했었는데….” 잠시 말끝을 흐리던 김 씨는 “4년 이라는 시간이 그래도 그냥 흐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라며 금세 미소 지었다.

“다닥다닥 붙은 작품, 희생자 많다는 역설적 의미”

같은 팀의 일원인 김건우 군의 어머니 김미나 씨는 KBS 사보와 만난 자리에서 꼭 읽어 봐 줬으면 하는 작품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시회를 기획한 꽃마중 팀원들의 마음을 담은 <다닥다닥 인사>라는 글이에요. 전시라는 게 한 작품 한 작품 천천히 감상해야 하는데 ‘너희를 담은 시간’ 추모전은 작품이 너무 많아요. 희생된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전시하다 보니 작품이 너무 많아 어쩔 수 없이 다닥다닥 붙여 전시를 해야 해요. 단원고 희생 학생 250명 가운데 이제 겨우 90여 점이 만들어졌는데 모두 만들어 전시하려면 더 큰 공간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더 다닥다닥 붙여 전시를 해야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많이 희생 됐다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봐 주세요”

전시회는 다음 달 8일까지 이며, 이후 광주총국, 춘천총국, 부산총국, 대전총국을 차례로 돌며 8월 말까지 계속된다.

장소	일시
본사	6월 22일 ~ 7월 8일
광주총국	7월 11일 ~ 7월 22일
춘천총국	7월 25일 ~ 8월 1일
부산총국	8월 4일 ~ 8월 12일
대전총국	8월 15일 ~ 8월 22일

Interview

KBS 부산총국 보도국 박선자 기자

취재 뒷 얘기를 푸는 곳

뉴스가 재미없다고? 다락방으로 와 봐~

"뉴스 시청자와 소통하는 맛에 푹~ 빠졌어요"

왼쪽부터 박선자 기자, 이이슬 기자

부산총국 보도국 페이스북 방송 '다락방'이 요즘 큰 인기몰이 중이다. 기존 뉴스에서 리포트 할 때는 진지하기만 하던 기자들이 '다락방'에서는 솔직하고 유쾌하게 취재의 뒷이야기를 들려준다. 특히, 부산 특유의 사투리를 숨기지 않고 마음껏 드러내면서 친근감을 더해 지역국 특색을 잘 살린 점도 인기 비결이다. "쌍방향 소통의 맛에 푹 빠졌다"라는 '다락방'의 진행자 박선자 기자를 KBS 사보가 만났다.

'다락방', 어떻게 처음 만들어지게 됐는지 궁금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겨울, 우리 파업이 다락방을 탄생시켰다. 파업 기간 동안 부산총국 보도국 기자들이 모여 시청자를 위한 진정한 뉴스를 고민했다. '1분 30초 안팎으로 시간이 한정된 리포트에 갈증을 느끼는 시청자들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뒷이야기, 취재 과정 중 미처 말하지 못한 재미있는 사연 등 시청자들이 더 궁금할 만한 이야기를 해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여기에다 'KBS를 외면해왔던 젊은 층도 끌어들일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도 더해져 SNS에 공간을 마련하게 됐다. '다락방'이라는 단어 자체가 왠지 비밀스럽고 우리끼리 낄낄댈 수 있는 공간이라는 느낌이 있지 않나. '페이스북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의미로 '다락방'이라고 이름 붙였다.

실제 '다락방'이 방송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을 거 같은데?

녹화할 장소 확보부터도 쉽지 않았다. 사용한 지 오래된 부산총국의 지하실 4평 정도 공간에 6mm 카메라 한 대와 조명 2개를 일단 마련했다. 시장에서 직접 흰 천을 떼어 왔고, 마이크도 장난감 마이크를 사서 설치했다. 가장 큰 문제는 취재기자들 모두 SNS 콘텐츠를 제작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이었다. 수차례 녹화를 해보고 실패를 거듭한 끝에 화면 비율을 겨우 맞출 수 있었고, 현재 모습이 나오게 됐다. 촬영·편집, 자막구성 등 대부분의 제작은 SNS 요원이 혼자 하고 있는데, 여건이 어려워 좀 더 많은 방송을 하지 못하는 점은 아쉽다.

'페이스북' 플랫폼을 선택하게 된 계기와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떤가?

젊은 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SNS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고, 제작비 한 푼 없이 콘텐츠를 만들어 확산시키기에는 페이스북이 최적의 플랫폼이었다. 특히 지역 디지털 뉴스는 열악하다 못해 사실 운영조차 어려운데, '없는 살림에 그냥 해보자'라는 생각이 오히려 먹혔다고 느낀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뜨거웠다. 페이스북 '좋아요'가 엄청 늘었고 덩달아 KBS 뉴스 부산 페이스북 페이지 구독자도 크게 늘어 다른 뉴스 게시물까지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녹화는 어떻게 진행되나?

보도됐던 뉴스 중에 하나를 고르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15분 동안 그냥 쭈~욱하는 형식이다. 녹화 시간은 15분 이내로 80%가 애드리브이다. 보도국 기자들이 돌아가며 출연하는데, 스타일이 모두 달라 재미를 주고 있다. 이이슬 기자는 본인의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하면서 재미를 주고, 황현규 기자는 '로봇설'이 나올 정도로 꼿꼿한 모습이 오히려 시청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장성길 기자는 처음엔 카메라 큐사인과 함께 얼어버렸지만, 이후에는 '톰과 제리'라고 불릴 만큼 나와 호흡이 잘 맞았다. 여러 편의 방송을 마친 지금에 와서는 소재와 형식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다.

'다락방' 만이 보여줄 수 있는 강점은?

다락방에 주로 출연하는 취재기자들이 거의 다 후배들이다. 후배들과 아이템을 선정해 같이 코너를 만드는 것 자체가 입사 이후 처음 접해보는 의미 있는 시도라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제작하고 있다. 토크쇼라는 형식이지만 10년 가까이 또는 10년 이상같이 지냈던 후배들과 '평소 이야기하듯이 마음 편하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 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사투리 진행도 가능했고, 시청자들도 그 부분을 알아보고 좋아해 주는 거라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다락방'을 만들어갈 것인지?

사실 '다락방'은 예산이 투입된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 분명 한계가 있다. 때문에 거창하게 정해놓은 계획이라는 것은 없다. 하지만 좀 더 페이스북 등 SNS에서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해 KBS 뉴스까지 사랑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할 예정이다. '예산이 주어진다면 더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도 한다. 추후에 다뤄보고 싶은 소재들도 앞으로 많은데 스포일러 가능성이 높아 KBS 뉴스 부산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앞으로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

'다락방' 시청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한마디는?

다락방을 통해 '쌍방향 소통이 이런 맛이구나' 라는 걸 기자들도 많이 느끼고 있다. 내가 취재해 보도한 내용에 대해 좋건, 나쁘건 피드백을 받는 것 자체가 기자에겐 가장 큰 행복이다. 때문에 다락방도 여러분들의 뜨겁고 날카로운 피드백을 항상 원한다. "다락방 is still hungry~~"

KBS NEWS 부산 'KBS 뉴스 부산' 페이스북 페이지 주소 www.facebook.com/kbsnewsbusan

뮤지컬이야? 드라마야? 뮤직 드라마 <투제니(to. Jenny)>

음악이 가득한 드라마가 찾아온다. 7월 10일 첫 방송되는 예능국 뮤직 드라마 <투제니(to. Jenny)>.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한 남자의 순애보'

<투제니>의 주옥같은 가사와 귀에 감기는 멜로디는 누구나 한 번쯤 느꼈던 첫사랑의 설렘을 가득 담고 있다. 주연 배우들은 직접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며 이를 아름답게 표현해낸다. 가수이기도 한 정채연은 <투제니>에서 한 남자의 순애보의 주인공, 권나라 역을 맡았다. 권나라를 향한 순애보를 그려나갈 박정민 역은 음악적 재능을 다양한 뮤지컬 무대를 통해 이미 인정받아 '2017년 제1회 한국 뮤지컬 어워즈'에서 남우 신인상을 수상한 이력을 가진 김성철이 연기한다. 극중 권나라는 어릴 때부터 예쁜 외모로 주목받으며 걸그룹 데뷔까지 탄탄대로를 걸어가지만,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는 아이돌들 사이에서 방황한다. 그러다 재계약의 기회라며 기획사에서 '싱어송라이터' 제안을 하고, 이를 계기로 박정민에게 기타를 배우기 시작하며 두 남녀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그려진다.

<투제니> 속 관전 포인트는?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노래가 아닌 인디밴드 중 묻힌 많은 노래들이 <투제니>를 통해 수면 위로 올라와 새 생명이 불어넣어질 예정이다. 박진우 PD, 이정화 작가, 전종혁 음악 감독이 의기투합해 만들어진 <투제니>는 저예산의 제작비로 기존 드라마의 문법을 지양하는 앵글과 씬 촬영기법을 이용하여 화려한 장치와 효과를 거두고 이야기와 음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제작됐다. 특히, 전종혁 음악 감독은 <내 이름은 김삼순>, <운명처럼 널 사랑해> 등 유명 작품에서 OST를 작사, 작곡한 베테랑 감독으로 드라마의 전체 음악 감독을 맡았다. 삽입곡들을 드라마의 분위기와 캐릭터에 맞게 편곡했으며, <투제니> OST 자체 음원을 제작해 뮤직 플랫폼 '멜론'에 유통할 예정이다. 또한, 극중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들이 중간중간 삽입되어 들어가 있다. <투제니>는 2부작으로 방송될 예정이다.

▶1부 : 7월 10일 화요일 밤 11시 10분, 2TV

▶2부 : 7월 17일 화요일 밤 11시 10분, 2TV

자기계발서도 귀로 듣는다!
KBS 오디오 드라마 <행복한 이기주의자>

"우리는 지금 행복할까?",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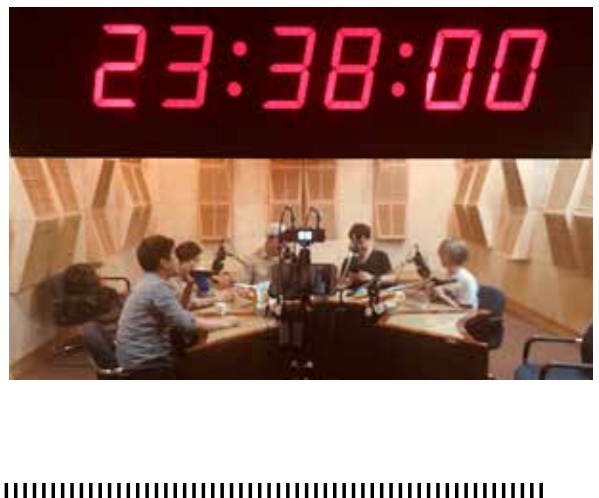
살면서 이런 고민이 들 때 서점을 찾아 자기계발서를 뒤적이곤 한다.
하지만, 이제는 매번 서점에 갈 필요가 없다. 자기계발서도 KBS 라디오로 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 시대 청춘의 고민 담아…자기계발서 드라마化는 처음

KBS 라디오가 또 한 번 새로운 도전을 했다. '행복'에 대한 담론을 담은 심리학자 웨인 다이어의 자기계발서 <행복한 이기주의자>를 오디오 드라마로 만들었다. 6월 4일부터 방송되고 있는 <행복한 이기주의자>는 벌써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끌고 있다. 드라마는 사랑과 꿈, 그리고 현실에 대한 우리 시대 청춘의 고민을 토대로 픽션을 섞어 재구성했다. 2018년 1인 방송을 진행하는 평범한 작가 지망생 이명호와 1979년 심야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는 DJ 정형석이 고민을 들어주고 상담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또한 스물아홉을 지나는 이명호가 주위 사람들을 통해 성장해가는 이야기도 다뤄진다. 그동안 소설이 원작이 된 경우는 많지만, 자기계발서가 드라마로 만들어진 건 처음이다.

청취자들을 사로잡는 매력만점 성우들

흡입력 있는 매력 만점 목소리의 성우들도 인기의 비결이다. 평창동계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의 목소리였던 이명호가 극중 여주인공으로 열연하고, EBS <책처럼 음악처럼> 진행을 맡았던 정형석 성우가 '심야 방송 DJ 역'을 맡았다. 그 외에도 영화 <시간을 달리는 소녀>에서 부드러운 미성을 선보인 심규혁, 광고계 남자 원탑 성우로 꼽히는 전승화, 독보적인 음색의 남유정, 애니메이션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김자연, <와이파이 초한지>의 석승훈 등이 출연한다.



청취자들이 원할 때 듣는다! '트위터'로도 소통

<행복한 이기주의자>는 매주 3회(월,수,금) KBS 라디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콩'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새롭게 론칭한 팟캐스트 플랫폼 '오디오클립'을 통해 업로드되고 있다. 청취자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1회당 20분 이내의 길이로 제작됐으며, 특히 오디오클립으로 올려 언제든지 청취자들이 원할 때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인기를 더하고 있다. KBS 라디오와 네이버 오디오클립의 프로젝트는 <마담셜록>과 <보물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회를 거듭할수록 호응을 얻고 있다. 26일부터는 성우들이 직접 출연하는 트위터 라이브 생방송도 첫 선을 보이는 등 KBS 라디오는 청취자들과의 소통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

팟캐스트도 접수한 KBS 1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

이름처럼 '최강'이다. 5월 28일 새롭게 출발한 <최강욱의 최강시사>가 팟캐스트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방송 첫 주부터 팟캐스트에서 화제를 모았고, 이제는 상승세를 이어가며 10위권을 넘보고 있다.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 패널로도 활약하고 있는 최강욱 변호사는 라디오에서도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다.

젊은 층까지 사로잡은 캐스팅…팟캐스트 순위권

<최강욱의 최강시사>는 방송 첫 주에 팟캐스트 플랫폼 가운데 가장 유명한 팟빵에서 순위 40위에 진입했고, 꾸준히 순위가 상승해 21위(6월 20일 기준)까지 올라왔다. 다른 팟캐스트에서도 비슷한 흐름이다. 포털 다음의 팟캐스트 순위는 6월 20일 기준 5위까지 올라왔고, 뉴스 분야에서만 본다면 2위였다. 가장 큰 인기 원인은 진행자 최강욱 본인이다. 젊은 층이 이미 많이 사용하는 팟캐스트를 통해 '포터블 포털'이라 불릴 만큼 해박한 지식과 유려한 언변, 개성 있는 캐릭터로 자리 잡아왔다. 그런 그가 지상파 라디오에 등장한 것만으로도 젊은 층에게는 관심이었고, 이 관심은 팟캐스트 플랫폼에서의 인기로도 이어졌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캐스팅이 팟캐스트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매일매일 변화하는 청취자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섭외

프로그램의 독보적인 섭외와 구성도 주목할 부분이다. 후발주자로 출발했음에도 매일매일 가장 핫한 뉴스의 인물들을 섭외해 이슈의 중심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6.13 지방선거'를 마친 뒤 6월 14일 방송에서는 화제의 당선자 경남도지사 김경수 당선인, 대구시장 권영진 당선인 등을 섭외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또한 고정 출연진으로는 주진형(경제 직설), 윤여준(보수의 품격), 심상정(진보의 향기), 한홍구(역사카페) 등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독보적 식견의 전문가들을 확보했다. <최강욱의 최강시사>는 시사뿐 아니라 인문 사회적 아이템까지 다양하게 소화함으로써 깊이와 함께 듣는 즐거움을 배가시키고 있다. 최근 1라디오 시사교양 라디오 프로그램들은 <최강욱의 최강시사>뿐 아니라 <김용민 라이브>, <KBS 열린토론>등을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팟캐스트 순위 차트에서 약진하고 있다.

단신

“그들 가운데 하나가 아닌 특별한 그 무엇, KBS로 인정받기를…”

36명의 사우들이 6월 30일자로 정년퇴임을 맞았다.
KBS는 6월 19일 시청자광장에서 2018년 2분기 정년퇴임식을 열고
선배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퇴임의 변

김영근(보도본부 라디오제작부)

누구나 그렇듯이 언젠가 이리될 줄 알았지만, 기어이 이렇게 무심하게 닥쳐오고 말았습니다. 해방감보다는 어떤 두려움이, 뿌듯함보다는 한줄기 회한은 비단 저만의 느낌은 아닐 겁니다. 누구에게나 퇴직, 퇴임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만큼 무겁습니다. KBS라는 이 둥지가 얼마나 튼튼하고 따스했는지 저뿐 아니라 여기 모든 분들은 잘 아시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남겨진 나날이 KBS에서 얼마이든 단지 앞서거니 뒤 서거니의 차이일 뿐 우리 모두는 예정된 그 길로 떠나게 돼 있습니다.

떠난 자들은 종종 옛집을 그리워할 것이고 그 집은 외로움을 떨칠 힘이 될 것입니다. 씁쓸했던 기억조차도 어쩌면 달콤한 추억이 돼버리는 곳, KBS는 우리에게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둥지가 보다 튼튼해지고 활력이 넘치며 따뜻함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떠납니다만 KBS를 바로 그렇게 만들어야 할 남겨진 이들의 책무가 실로 막중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여기 계신 양승동 사장님 등 임직원분들도 함께 격려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촛불이라는 시대정신이 KBS 역사에도 새 이정표를 열었습니다만 KBS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멀고도 험난합니다. 생존을 담보할 혁신과 섞어서 더 커져야 할 통합이 쉬울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꼭 지켜할 원칙과 출렁이며 격동하는 현실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잘 찾아야 극복되는 힘든 과제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잘해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KBS가 단지 ‘그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시민들로부터 ‘특별한 그 무엇, 공영방송 KBS’로 인정받고 마침내 우뚝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2분기 정년퇴임자 36명 명단

성명	부서명	성명	부서명
황우섭	인재개발원 인재개발부	강한석	제작기술본부 TV송출부
김흥수	심의실 심의부	김광태	제작기술본부 R송출부
장옥님	전략기획실 방송문화연구부	이경희	시청자본부 경영정보부
박인섭	전략기획실 방송문화연구부	김상배	시청자본부 건축기전부
설원심	방송본부 2TV편성운영부	이원태	시청자본부 경영지원센터
최광석	방송본부 광고기획부	유봉열	시청자본부 경영지원센터
박효철	방송본부 영상제작3	최재관	부산방송총국 시청자서비스국
김영근	보도본부 라디오제작부	박응훈	부산방송총국 시청자서비스국
곽재우	보도본부 영상편집부	손옥규	울산방송국
김학중	보도본부 영상편집부	김진봉	대구방송총국 편성제작국
김선미	보도본부 보도그래픽부	박유환	안동방송국
서은섭	제작본부 TV프로덕션1	이진향	포항방송국
조연동	제작본부 TV프로덕션4	김진욱	청주방송총국 보도국
조상학	네트워크센터 화성송신소	박한규	청주방송총국 기술국
김상욱	제작기술본부 보도기술1	신건명	청주방송총국 기술국
오창훈	제작기술본부 중계기술2	이필용	춘천방송총국 보도국
한종관	제작기술본부 중계기술2	장영식	강릉방송국
이영진	제작기술본부 TV송출부	강병호	제주방송총국 기술국

자료동 새 이름 투표, ‘누리동’ 1위

자료동(기존)의 새 이름이 ‘누리동’으로 결정됐다. ‘누리동’은 자료동 신규 명칭 공모를 거쳐 선정된 5개의 후보 가운데 26%의 선호도로 1위를 차지했다. ‘누리’는 세상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로 ‘누리동’은 세상과 소통하는 장소, 세상의 모든 자료가 있는 곳, 다양한 콘텐츠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 등의 의미를 지녔다. 자료동 신규 명칭에 대한 사내 선호도 투표는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6일간 사내 인트라넷 코비스에서 진행됐으며 총 535명이 참여했다.

<KBS 스페셜-세월호 엄마들의 이웃에 살고 이웃에 죽고>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KBS 스페셜-세월호 엄마들의 이웃에 살고 이웃에 죽고>(기획: 임기순, 연출: 조정훈, 지우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2018년 4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지상파 TV부문 최우수 프로그램상을 수상했다. 4월 19일 방영한 <KBS 스페셜>은 세월호 참사로 아이를 잃고 연극을 시작한 엄마들의 이야기를 통해 세월호 참사를 관객이자 구경꾼으로 대해왔던 우리 스스로에 대한 반성과 이웃에 대한 성찰을 담은 다큐멘터리다. <KBS 스페셜>은 유가족의 슬픔과 상실감을 드러내는 기존의 추모 방식을 넘어 세월호를 기억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함과 동시에 코믹 연극과 다큐를 오가는 제작 기법이 인상적이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제41대 기자협회장에 공아영 사우

공아영 사우가 새 기자협회장으로 뽑혔다. 2003년 공채 29기로 입사한 공아영 사우는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실시된 협회장 선거에서 단독 후보로 입후보해 89.61%의 찬성표를 얻었다. 이번 선거는 모바일 투표로 진행됐으며 전체 유권자 543명 중 356명이 참여해 65.5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바른 목소리를 듣기 위해 귀 기울이겠습니다”

제41대 기자협회장으로의 부름을 겸허하고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오랜 질곡의 시간을 거치며 KBS 기자 사회에는 일부 반목과 불신, 냉소의 분위기가 자리한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다시금 소통과 신뢰의 빛이 스며들고 있음 또한 느껴집니다. KBS 뉴스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한발 나아가느냐, 수많은 언론 중 ‘one of them’으로 남느냐,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전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부의 소통과 함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 작동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기자협회는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오직 협회원들의 바른 목소리를 듣기 위해 귀 기울이겠습니다.

KBS 2TV 수목드라마

당신의 하우스헬퍼

복잡한 인생, 당신의 하우스헬퍼가 정리해드립니다!

일이면 일, 연애면 연애, 가족이면 가족. 무엇하나 쉽게 풀리지 않는 삶에서 매일 고군분투하고 있는 당신 앞에 '만능 하우스헬퍼'가 나타난다면? 어질러진 집은 물론이고 고민 많은 마음속까지 깨끗하게 정리해줄 <당신의 하우스헬퍼>가 찾아온다. 동명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당신의 하우스헬퍼>는 바쁜 일상 때문에 엉망이 된 집을 청소하기 위해 하우스헬퍼 김지운(하석진 분)을 만난 주인공들이 집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도 비워내고 정리해나가는 과정을 싱그럽게 그린 드라마다. '살림은 집안 운영의 전반을 설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이라는 확고한 살림 철학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깨끗한 집과 새로운 행복을 선물하는 '훈남 하우스헬퍼' 김지운의 본격 라이프 힐링 타임이 시작된다.

'만능 하우스헬퍼'의 마법에 빠질 청춘 4인방

임다영(보나 분)은 지극히 평범한 20대 청춘이다. 광고회사 늦깎이 인턴으로 정규직 전환을 위해 잔심부름도 마다하지 않고 회식에서는 신나는 노래로 분위기를 띄운다. 머리만 감고 다시 회사로 뛰어 나가는 생활이 반복되며 엉망이 되어버린 그녀에게 '하우스헬퍼' 김지운이 찾아온다. 겉보기엔 잘나가는 주얼리 디자이너지만 현실은 집에 쪼그려 앉아 구슬 꿰기 알바를 하는 윤상아(고원희 분), 허세 넘치던 그녀의 인생은 김지운을 만나 어떻게 변화할지도 기대를 모은다. 또, 과거 트라우마 때문에 남자 공포증을 안고 있는 한소미(서은아 분), 동업자인 남사친과의 관계에서 갈팡질팡하는 강혜주(전수진 분) 역시 집 정리하러 온 김지운에게 삶 또한 차근차근 정리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보고만 있어도 힐링되는 청량한 청춘들과 함께 올 여름은 <당신의 하우스헬퍼>의 매력 속에 빠져보자.

▶7월 4일 수요일 밤 10시 첫방송, 2TV

KBS 사보
www.kbs.co.kr

발행인 양승동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전화(문의 및 구독신청)** 781-2824, 2828, 2817
편집인 김종명 **취재** 유승영 우수경 정환욱 김한나 한지연 **사진** 이민규 장병희 홍정환 **디자인·제작** 김채원 도두커뮤니케이션
〈KBS 사보〉는 KBS 홈페이지(www.kbs.c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